

장관급 26명중 3명뿐·軍 장성 진급자 全無...국민의당 “호남 차별” 맹공

박지원, 비대위 회의서 “朴정부 호남 인사·예산 차별” 성토

주승용 “SOC 예산, 영남 남아 들고 호남은 이월해도 부족”

총선 후보비 파문 국면에서 한 발 벗어난 국민의당이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인사와 예산에서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각을 세우고 나섰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개각 문제가 술술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개각에 있어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 26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고 군 대장 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으며 전반기 군 장성 진급자 15명 중에도 호남 출신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개

각에서는 지역 균형 탕평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각종 의혹과 제보들이 당으로 답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임위 등을 통해 제대로 추궁할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주승용 비대위원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호남 차별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지난해 추경에서의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 집행실적을 지표로 그들과 일일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영남권의 포항~

삼척 간 철도사업은 본예산에 45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작년 추경에 500억 원을 증액했지만 실 집행액은 본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2061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울산 구간은 본 예산 3125억 원이며 추경에 350억 원이 반영됐지만 실 집행액은 2900억 원에 그쳤고 전주~광양 구간은 2000억 원 본예산에 412억 원이 추경에 증액됐지만 실 집행액은 1500억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상주~영덕 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본예산 5684억 원에 추경에 500억 원 증액했지만 실 집행액은 4557억 그쳤다고 덧붙였다.

대구순환고속도로도 본 예산 2630억 원에 추경에 150억 원 증액했으나 2223억 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함양~울산 구간도 850억 원의 추경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호남의 경우, 이월된 예산까지 끌어들이는 등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비대위원은 보성~임성리 구간은 52

억 원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추경에 100억 원 편성되었지만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 실제 집행액은 205억 원에 이르고 서해선도 400억 원 편성돼서 1200억 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은 “오늘 지적한 영남권 6개 사업에서만 2762억 원이 불용된 상황”이라며 “영남은 퍼줘도 못쓰고 있는 반면에 호남은 없어서 못쓰는 기가 막히는 현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혁신도시 입주 통합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 입주 기념식이 13일 오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토담리지타워에서 열렸다. 유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문순태 이사장, 임명규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파 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회, 2野 자리 싸움에 일주일째 ‘개점휴업’

더민주·국민의당, 의장 선출·의장단 구성 합의 못해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자리싸움’이 지속되면서 수일째 ‘개점 휴업’상태가 되고 있는데,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안 조례제정과 집행부 실·국 업무보고 차질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후반기 첫 회기에 들어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8일, 11일, 12일, 13일 네 차례에 걸쳐 개회, 정회, 산회를 반복하는 파행 끝에 선거를 지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명씩 후보를 낸 가운데 의장선출, 의장단 구성 방식과 일정 등 어느 것 하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6일째 의회가 개점 휴업상태

다.

지난 7일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 6일째 의장 공백 사태도 이어졌다.

의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일부 의원의 참석으로 선출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오는 18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끝바로 산회했다.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양측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오는 22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장을 뽑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 당은 의장 선거와 맞물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8석 배분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른바 ‘자리 싸움’과 ‘밥그릇 쟁기’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처럼 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후보 등록이 취소돼 최악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광주시 각 실·국 업무보고도 일정 조정 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 현안 조례조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시급한 조례 개정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남구의회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자리싸움’이 지속되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남구의의회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두 차례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나섰지만, 이날 오전 열린 임시회 마저 산회하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시당 워크숍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은 국민의당 광주시당 사무처 및 지역위원회 사무국 소속 지역보좌관 직무 역량강화 집중 워크숍을 14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광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단 회의와 함께 열린다.

시당은 집중 워크숍을 매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워크숍을 통해 사무처와 지역 상근 당직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철 위원장은 “직무 역량강화 집중 워크숍을 통해 시당 사무처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별 상근 당직자들까지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것”이라며 “특히 정기 워크숍을 정착시켜 향후 국민의당 광주시당의 인재육성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우수한 청년당원, 임당 예정인 인재들을 정권교체의 첨병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17일 ‘총선 백서’ 공개

참패 책임론 당권 변수 가능성...서청원 출마 결심

새누리당이 4·13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 발간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상욱 대변인은 1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외부 업체에 위탁해 집필·검수를 마친 이번 백서에 대해 “사무총장은 물론 비대위원 누구도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서 “그 어떤 사람도 백서 내용에 대해 검토하거나 가필하지 않고 국민에게 선보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9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마련된 이번 백서는 단순한 선거 패인을 점검하는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대 총선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서를 바탕으로 차기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계파 주자들 간의 책임론으로 번지면 그 파장에 따라 전대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박계 최장인 서청원 의원이 8·9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굳히고 공식 선언을 위한 ‘택일’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친박계는 서 의원의 출마에 대비, 지역별로 조직 점검에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표율이 높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이 승부처라고 보고 당협위원회별로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서 의원의 결단이 임박해진 분위기 속에서 비박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김부성 전 대표는 14일 대표 취임 2주년을 맞아 1000명 가까운 지지자를 모아 대규모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세 대결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인사비서관 이지현·연설기록관 최진웅

청와대는 최근 신임 인사비서관에 이지현 전 행정자치비서관을, 연설기록비서관에 최진웅 행정관을 각각 임명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인사비서관은 김동국 전 비서관이 지난달 말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연설기록비서관은 조인근 전 비서관이 최근 사직하면서 공석 중이었다.

이 신임 비서관은 행정고시 30회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과 재정기획담당, 경기도 환경보건국장과 교통국장, 행정안전부 대변인,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방송작가 출신인 최 신임 비서관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 2012년 대선에

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 구상을 담당했고, 집권 후에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해왔다.

이 신임 비서관의 보직이동으로 빈 자리가 된 행정자치비서관에는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을, 4·13 총선 참패 후 산동철 전 비서관의 사임으로 장기 공석 상태인 정부비서관에는 정치인 출신을 대상으로 각각 책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인사비서관과 경호실 차장 등 참모진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비서관 자리 공석이고 나머지는 발령이 났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